

삼킴 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형질세포종

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⁾윤준희¹⁾, 박지선¹⁾, 하혜림¹⁾, 김진철¹⁾, 조진현¹⁾, 임주한¹⁾, 이문희¹⁾

서론: 골수 외 형질세포종은 형질세포종양 중 약 3%의 발생 빈도를 보이는 드문 질환이다. 골수 외 형질세포종은 다양한 신체 기관에 발생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두경부, 특히 비강이나 비인두, 편도 등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골수 외 형질세포종이 혀의 기저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서, 저자들은 삼킴 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62세 남자의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: 평소 당뇨, 심혈관 질환 및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 중이던 62세 남자가 2개월전부터 심해진 삼킴 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다. 내원 후 시행한 경부 CT에서 비인두와 혀 기저부의 종괴가 발견되어 이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. 조직검사 결과 CD3, CD20 및 kappa light chain 면역화학염색에는 음성이고 CD138 및 Lambda light chain 면역화학염색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는 골수 외 형질세포종이 진단되었다. 일반 혈액 검사 (complete blood cell count), 크레아티닌, 알부민 등의 피검사는 모두 정상 범위를 보였으며 골수 검사 및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(FDG-PET)에서 비인두 및 혀 기저부 외에 다른 부위의 침범 소견은 없었다. 환자의 기저 질환이 많아 항암치료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, 골수 외 형질세포종의 침범 위치 및 범위가 방사선 치료에 적합하여 현재 환자는 방사선 치료 중에 있으며 삼킴 장애 증상은 호전 중에 있다.

결론: 골수 외 형질세포종은 상대적으로 드문 악성 질환이며 특히 혀의 기저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. 하지만 본 증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혀 기저부의 종괴를 보이는 환자의 감별 진단에 있어서 편평상피세포암과 같은 일반적인 두경부암 외에 형질세포종 또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으며 조직검사 및 면역화학염색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겠다.

